

2025. 7. 3

해외동향부 (제 7187)

- 주요 뉴스: 미국, 베트남과 무역협약(관세율 46%→20%) 선언 6월 민간고용은 2년래 첫 감소
 - EU,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강경한 입장 나타낼 전망. 필요 시 보복관세도 준비
 - ECB 주요 인사, 과도한 저물가 장기화를 경계. IMF는 현 금리 수준을 지지
 - 영란은행 테일러 위원, 금리인하 강화 필요. 재무장관 사임 가능성에 재정 우려 증폭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 관세 완화 기대, 재정 악화 우려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5%], 달러화 약보합[-0.04%],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베트남과의 무역협약, 기술주 강세 등으로 최고치 경신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에너지 관련주 강세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저조한 6월 민간고용,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약보합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감세법안으로 인한 재정 우려 지속 등으로 4bp 상승
독일은 영국의 재정 불안 심화 가능성 등으로 9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53.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55.9원, 0.2% 하락). 한국 CDS 약보합

		7/2일	7/1일	전일대비			7/2일	7/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227.4	6,198.0	+0.47%	국채 금리 10y	미국	4.28%	4.24%	+4bp
	유럽	541.21	540.25	+0.18%		독일	2.66%	2.57%	+9bp
	중국	3,454.8	3,457.7	-0.09%		영국	4.61%	4.45%	+16bp
	일본	39,762	39,986	-0.56%	CDS 5y	한국	26bp	26bp	-0bp
	한국	3,075.1	3,089.7	-0.47%		중국	50bp	50bp	-0bp
환율	달러지수	96.78	96.82	-0.04%	위험 지표	EMBI+	-	364	-
	유로화	1.1799	1.1806	-0.06%		VIX	16.64	16.83	-1.13%
	엔화	143.66	143.42	-0.17%		WTI유	67.45	65.45	+3.06%
	위안화	7.1631	7.1658	+0.04%	원자재	구리	514.9	504.8	+2.00%
	원화	1,358.7	1,355.9	-0.21%		금	3,357.5	3,338.8	+0.5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베트남과 무역합의(관세율 46%→20%) 선언. 6월 민간고용은 2년래 첫 감소

-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베트남과의 무역합의에 성공했다고 발표. 이에 따르면, 모든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20%(현재는 46% 계획)로 일괄 적용되고,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환적 상품의 경우 40%의 별도 관세가 부과. 또한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전면 개방을 수용
- 베트남은 미국에게 8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양국 간 무역 규모는 1500억달러. 시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고, 나이키 등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둔 상당수 기업의 주가가 상승.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
- 한편 6월 ADP 민간고용은 전월비 3.3만개 줄어 전월(2.9만개 증가) 및 예상치(9.5만개 증가) 크게 하회. 이는 2년 3개월 만의 첫 감소이며, 세부적으로는 건강 및 교육 등 서비스부문에서 큰 폭 줄었고, 제조업 및 건설부문에서는 증가. 이직자 및 기존 근로자 모두 임금 상승률은 둔화
- 시장에서는 해고가 제한적이나, 기업이 신규 채용과 퇴직자 보충에 신중한 것이 이번 결과의 원인이라고 평가. 3일 발표되는 6월 고용보고서와 ADP 민간고용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지만, 일부 기관은 기존의 6월 신규 취업자수 전망을 하향(Wells Fargo). 현재 6월 신규 취업자수 예상치는 11만명으로 4개월래 최소
- CME의 FedWatch는 금년 3회(9, 10, 12월. 각 0.25%p)의 금리인하를 예상. 7월 금리인하 확률의 경우 6월 ADP 민간고용 발표 이전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20%→23%).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까지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연준은 적어도 9월, 혹은 그 보다 이른 시간에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Schrodgers, 글로벌 회사채 전망 ‘중립’으로 상향. 미국 경기침체 위험 감소 반영

- 영국계 자산운용사 Schrodgers는 글로벌 회사채 전망을 ‘부정적’에서 ‘중립’으로 조정하고,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 의견을 유지. 이는 미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 소비수요 증가, 소비자심리 개선 등이 구체화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감소한 영향을 반영했다고 설명

■ EU,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강경한 입장 나타낼 전망. 필요 시 보복관세도 준비

- FT 등에 따르면, EU의 세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에 회원국들은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 특히 관세의 철폐 혹은 대폭 인하를 요구하고, 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도 즉각 낮춰야한다고 강조. 또한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 ECB 주요 인사, 과도한 저물가 장기화를 경계. IMF는 현 금리 수준을 지지

- 렌 위원은 2% 이하의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 분쉬 위원도 ECB가 적극적인 정책 결정으로 역내 물가가 목표를 하회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IMF는 ECB의 현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

■ 영란은행 테일러 위원, 금리인하 강화 필요. 재무장관 사임 가능성에 재정 우려 증폭

- 테일러 위원은 경제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연내 4회가 아닌 5회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수요와 무역부문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
- 한편, 스타머 총리는 리브스 재무장관의 유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면서 재무장관의 사임 가능성이 제기. 다만 누가 차기 재무장관이 되더라도 재정 불안 해소가 어렵다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국채금리 큰 폭 상승(10Y: 4.61% +16bp)

■ 일본 총리, 국익 위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 고려. 이란은 IAEA의 사찰 거부

- 이시바 총리는 국익 보호를 위해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고려한다고 언급. 다만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첨언
- 한편 이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에 자국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발표. 이는 사찰 거부로 해석되었고, 중동지역 긴장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WTI 가격은 상승(67.45달러, +3.1%)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3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고용보고서, 6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6월 ISM 서비스 PMI
- 미국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 발언, 중국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일자리 시장, 고용 증가율 둔화 등으로 심각한 문제점 내포 - WSI

(The Jobs Market Is Starting to Fall Apart)

- 일자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속도는 둔화(작년 월평균 16.8만건 vs. 올해 5월까지 월평균 12.4만건). 이는 관세 인상, 공공부문 인력 축소, 이민 단속 강화 등이 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인구 증가 둔화와 노동자의 고령화 등도 영향
- 한편, 1~4월까지 월별 고용 증가분 수정치가 평균 5.5천건 하향 조정된 것도 발표되는 공식 발표보다 고용 둔화가 더욱 심각함을 방증. 특히 그 동안 낮은 수준의 해고가 견조한 노동시장에 크게 기여했는데, 기업이 인력 감축에 나설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이러한 상황은 향후 경제 성장을 저해할 소지

■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단기적으로 기업의 물가 상승 압력 흡수를 시사 - 블룸버그

(The Surprising Tariff Lesson Buried in Inflation Data)

- 대체로 관세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효과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순차적으로 영향. 다만 단기적 측면에서 생산자물가의 상승 폭이 소비자물가의 상승 폭을 상회. 이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물가상승 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때문
-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최근 물가 동향에서 확인. 하지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지속될 경우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가 빨라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 특히 현재 내년 인플레이션 기대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 주의 요구

■ 유로화 강세, 수출 의존도 높은 유로존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 미칠 소지 - 블룸버그

(A Strong Euro Isn't What the Doctor Ordered)

- 연초 이후 유로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13% 올랐고, 이에 대한 긍정적 해석 가능. 하지만,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최근 ECB 긴도스 부총재는 유로화가 1.20달러를 상회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이는 역내 경제가 제조업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 유로화 강세는 수출 경쟁력 약화, 수입 물가 하락 등으로 인한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 경제가 강하다면 통화 강세를 감당할 수 있지만, 유로존 경제는 성장률이 1%에 머무는 등 부진한 상황. 이에 재정 지출 확대, 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

- **미국 트럼프의 對일본 관세 위협, 성장률 하락 등 최악의 시나리오 초래할 우려 - 블룸버그**
(Trump's 35% Tariff Threat Feeds Japan's Worst-Case Scenario Fear)
 -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양국 간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 표명. 관련 여파로 Nikkei225지수는 0.6% 하락 마감. 일각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협상 결렬시 Nikkei225지수가 38,000(현재 39,760)까지 하락하고, 중기적으로는 GDP가 최대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역시 지연될 가능성. 한편 일본 정부는 모든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부문별 관세를 일괄 철폐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교착상태. 그럼에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결국 일본이 더 많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 다만 체결되더라도 일본의 실익은 제한적일 전망
- **미국 노동시장의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와 달리 고용 둔화 신호 발신 - Financial Times**
(The jobs market puzzle)
- **미국의 감세법안, 재정 방만정책 일관성 결여 등 트럼프노믹스의 한계 노출 - The Economist**
(The big beautiful bill reveals the hollowness of Trumponomics)
- **미국의 감세법안, 낮은 지지율·저소득층 피해 등으로 공화당에 부정적 - Financial Times**
(Is Donald Trump's 'big, beautiful bill' a political curse for Republicans?)
- **신흥국 채권 수요, 세계적 혼란에도 脫달러화투자 다각화 등으로 큰 폭 증가 - Reuters**
(Emerging market debt sale surge defies global turmoil amid signs of de-dollarisation)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